



사회 |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은 인권" 레베카 고퍼츠 내한 국회 토론회

입력: 2018-07-05 18:29:29 | 수정: 2018-07-05 23:40:58



"임신 여성 중 22% 임신중지 선택...합법·금지 국가 간 큰 차이 없어"



레베카 고퍼츠 위민오펜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 세계적 연대로 만들어가는 성재생산건강과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뉴스한국)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장하는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고퍼츠 위민오펜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여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성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다"며 "한국도 인공유산 합법화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배론원격평생교육원 11주년 기념 이벤트 사회복지사도 역시! 배론!!

이날 초청토론회는 건강과 대안,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인도주의 실천의 사협의회, 정의당이 주최했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임신중지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인데 고퍼츠 대표는 아일랜드는 물론 남미와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재생산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맥락에서 이 이슈의 의미와 진행 형태를 소개하기에 적절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고퍼츠 대표는 불법과 합법의 사이를 활용해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네덜란드가 임신중지 합법 국가인 점을 이용해 네덜란드 선박을 타고 바다 위에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경구용 인공유산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을 이용해 약을 배달하는 식이다.

Popule

고퍼츠 대표는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은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건강권과 인권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두 약은 먹는 인공유산약이다. 미페프리스톤은 199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했고, 2000년부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소프리스톤은 산후 출혈이나 불안정 유산을 치료하는 데 쓰여 임신중지 금지 국가에서도 사용하지만 미페프리스톤은 오직 임신중지를 허용하 나라만 들어온다.

WHO뿐 아니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2016년 발표한 '성적 및 생식 보건 권리에 관한 논평'에서 "임신중지에 사용되는 약물을 포함, 필수 의약품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퍼츠 대표는 "임신중지는 결국 인권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만연하다. 무엇보다 임신중지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신한 여성 중 22%가 임신중지를 선택하는데 연간 5600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고퍼츠 대표는 "여러 의학 시술 중 가장 많은 시술이 임신중지이며,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1000명 당 34명)와 합법인 나라(1000명 당 37명)의 임신중단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 때문에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은 자신이 예외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침묵을 깨야 정치인·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가성비 좋은 주유할인카드 CAR LIFE SAMSUNG CARD

핫이슈

아시아·항공 노조 "박삼구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아시아·항공이 탑승객에게 가루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

5년간 어린이 자석 관련 사고 222건...삼립 사고 84.7%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원구가 바뀐 이유...어린이에게 치명...

경찰,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

고흥아파트서 이렇스런 날벼락...경찰, 돌진 투척 낙하 예방 나서 최근 고흥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잇...

아디다스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아디다스의 홍보영상에 전반기 등장...사경덕 교수, 수정 요청 메일 러시아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아디다스의 홍보영상에 전반기(육일)...

10년간 연구용역비 2억 원 배를 단 신학합력단 교수 구속 지난 10년간 연구용역비 2억여 원을 유용하고 공무원에게 뇌물...

군인권센터, "지드래곤 대령실 일원 보도는 '의장'...문제는 열악한 군 병 최근 연예 매체 디스재치가 그를 방백한 지드래곤분명 권지용임...

정봉주 옹호 논란 일인원·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중장계' 성추행 의혹으로 '미투(Me Too)'도 성 폭력 피해자들...

이재명 캠프 고발에 발끈한 김부선 김영환, "이재명이 직접 고소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배우 김부선 씨의 불륜 의혹을 둘러싼...

경찰, 강진 아산서 발견한 번사체 신원 확인...실종 고등학교생과 DNA 일 경찰은 전라남도 강진에 한 아산에서 발견한 신원이 10일...

"거울 정치인? 실패한 인생...김종필 골다" '황교익 칼럼니스트' 맹비판 청와대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게 훈장을 추사한다고 밝힌...

리얼미터 '개고기 식용' 법으로 금지 반대 51.5% vs 찬성 39.7% 국민 절반 정도가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성폭행 당했다" 피해 고백 나오자 조재현 미투 고발자 검찰 고소 영화배우 조재현이 16년 전 방송 사회장 앞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최신 취약점 탐탄 랜드크랩 랜섬웨어 주의 필요 최근 최신 취약점을 이용한 랜드크랩 랜섬웨어가 국내에 확산하...

"일본항공, 기내에 데리상 전반기' 문양 안산다" 일본항공(JAL)이 가루식 도매업에 전반기 문양을 사용하지 않겠...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 소개해준다고..." 강진서 고등학교 실종 일지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아버지 친구 구물만나라 난간 고등학교생...

LIN



LIN



말했다.

고퍼츠 대표는 임신중지가 유행을 유발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률을 높인다는 것 역시 모두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메사추세츠 의학협회가 발간하는 의학잡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에 실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한편 고퍼츠 대표는 위민온웹을 통해 먹는 인공유산약을 제공하는 한편 2016년부터는 임신중지 원격 의료서비스도 진행한다. 매달 방문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 17개 언어로 쓴 50여만 건의 도움 요청 메일에 응답하고 있다. 고퍼츠 대표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위민온웹을 통해 임신중지를 한 한 여성이 보낸 글을 인용했다. "나는 여성들이 무엇이 자기 자신을 위해 제일 중요하지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함을 이해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관련기사


-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낙태 허용 결정
- 현재,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 변론...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대결 구도 넘어야
- 낙태죄 공개 변론 열리는 현재 앞 찬반 주장 팽팽하게 맞서
- 낙태죄는 위헌?...헌법재판소, 6년 만에 공개 변론
- 靑,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 제로섬 논의 아냐"

뉴스한국 핫클릭


- 정부, 공공분야 갑질부터 근절한다...9월까지 특별 단속
- 해군부대 지휘관, 부하 장교 성폭행 시도...간급 체포
- '질병 치료 효과?' 블로그에 허위과대광고 식품업체 13곳 적발
- 경찰 피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 56.5% 증가...수사 개혁과제 성과
- 법무부, 미국과테달라 도주한 성범죄자 지난달 국내 송환
- '해외구매 이용은 저렴한 가격 때문...27.7% 싸다 느껴'
- 변협, '법원이 법조삼륜 한 축 변협을 길들이려...결코 묵과할 수 없어'
- 밀폐 공간 가스 질식사 사망자 10년간 191명...예방책 마련
- 인권위,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인권순회상담한다
- 여름에 집중 발생하는 에어컨 화재...'실외기 전기배선 점검해야'
- 세종병원 참사 얼마 전인데...화재 취약 요양병원·요양시설 127곳 적발
- "복직 시한만 알려줬더라면" 쌍용차 해고노동자 숨진 채 발견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동방신기, 일본 들었다 왔다...해외가수 최초...




BTS Earns First No. 1 Album on Billboard 200 Chart With 'Love Yourself: Tear'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1위, K팝 전체의...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1위?... "설렘 반..."



비밀의 숲-1987 백상 대상... 조승우 ...

뉴스한국 주요뉴스



정봉주 옹호 논란 일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중장계

경기 안성서 10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5명 사상 참변

이재명 캠프 고발에 발끈한 김부선-김영환, "...

최신 취약점 토탈 캔드크랩 랜섬웨어 주의 필요

군인권센터, "지드래곤 대령실 입원 보도는 '과...'


"대법원에 33송이 국화꽃" KTX 해고 승무원 ...

김종필 전 총리 향년 92세 별세...3김 시대...


"'은행 채용비리'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 규탄..."

"가짜 난민'은 없어요...난민이거나 난민이 아닌..."

FREE SHIPPING \$79+



TODAY 뉴스 더보기



"에견린 참사인데 경영진만 몰랐나"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거리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지 6일째인 6일 오후 아시아나항공 직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참여연대,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 문을 두드렸을 때 법원은 정의 군인권센터 "기무사, 탄핵 기각 시 촛불집회 무력 진압

"미중무역전쟁 본질은 G2 권력투쟁"

통일농구 남북 대결서 남자 복측, 여자 남측 승리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은 인권" 레베카 고퍼츠 내한 국회 정부, 공공분야 갑질부터 근절한다...9월까지 특별 단속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연예
국제	주 옹호 논란 일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중장계			
2	경기 안성서 10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5명 사상 참변			
3	이재명 캠프 고발에 발끈한 김부선-김영환, "이재명이 직접			
4	최신 취약점 토탈 캔드크랩 랜섬웨어 주의 필요			
5	군인권센터, "지드래곤 대령실 입원 보도는 '과장			
6	"대법원에 33송이 국화꽃" KTX 해고 승무원, "사			
7	김종필 전 총리 향년 92세 별세...3김 시대' 역사 속			
8	"'은행 채용비리'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 규탄...최			
9	"가짜 난민'은 없어요...난민이거나 난민이 아닌 사			
10	강원도 철원에서 규모 2.7 지진 발생...최대진도 III			

멀티미디어 뉴스



'대법원에 33송이 국화꽃' KTX 해고 승무원, "사법농단 변호사 노릇 멈추라"

드디어, SKT의 LTE 무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

사회는 지금




#METOO #WITHYOU

"당원 심정을 출추게 하겠다" "미투운동 언론보도...5건 중 1 박법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건 가해자 입장에 초점"

103개 단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 출범...엄 "공격이 아니라" 여성건강권' 공익" VS "필리핀 부각해 마 바르미래당 새 원내대표 김관영, "젊고 강한 야당 만들겠다"


키워드뉴스

 Drive 87% less emp
turnover at your com

소셜로그인

소셜계정으로 작성하세요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click! 

0/250

보내기

Powered by LiveRe

문는 질문마다 “확인해줄 수 없다”... 朴 대통령 대면조사 앞두고 입 다문 특검 5

최저임금 오른다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복지부 장관 고소하겠다

[AD] '임플란트' 비쌀 필요 전혀 없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부글부글'...일본-필리핀서 화산 폭발

이용우 군 실종사건 실족사 무게...타살 가능성 없어

[AD] 혈당, 혈압 한번에! 일양 당케어알파 30일 무료체험 이벤트!

추적 르포, 우리사회 이면을 파헤치다

북한통일대전 ①北, 2015 통일대전 완성.

관련기사 15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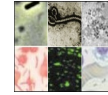


분석과 예측, 현안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

화산(火山), 지구 도처에 놓인 '시한폭탄'

관련기사 10 건

다시 보는 기사



북한 생화학 무기 유력 "시리아 사태 서울 한복판, '손상상 초월... 핵보다 무편에서 재현될 수도' 서위

존댓말 실종사건 "손님, 가스통돈 900원이 심니다"



회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 및 제휴문의 | 청소년보호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상호: (주)뉴스한국 | 제호: 뉴스한국닷컴 | 발행인/편집인: 이길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길성 | 사업자등록번호: 129-81-75892 | 등록번호: 서울, 아01899 | 발행일: 2004년 11월 1일 | 등록일: 2007년 9월 17일 | 주소: (우)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1601호 | 대표전화: 02-566-2116 | 팩스: 02-569-2114 | E-mail: web@newshankuk.com

뉴스한국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4 Newshankuk.com, Inc. All Rights Reserved.